

'햇빛·바람소득 기반 연금도시 전복'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신재생에너지 수익 도민에 환원... 가구당 최대 연 1000만원 연금 지급"

도민 참여형 주민연금제 도입·전북성장공사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추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전북에 살기만 해도 연 1,000만 원의 안정적인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원택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가구당 최대 연 1,0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햇빛·바람소득 기반 연금도시 전복(이하 연금도시)'을 핵심 공약으로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금도시 프로젝트는 태양광과 풍력 등 전북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도민의 안정적인 자산과 노후소득으로 연결하는 '전북형 도민자산 전략'이다.

이원택 후보는 "인공지능(AI)과 RE100 중심의 새로운 산업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전북의 햇빛과 바람은 가장 강력한 미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외부 기업의 이익



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연금과 소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도민 참여형 주민연금제 도입 △전북성장공사를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생태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 환류 시스템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과 풍력 사업에 도민들이 펀드 또는 자본 형태로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햇빛·바람소득이라는 주민연금으로 환원하는 도민 참여형 주민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RE100 산업단지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주민연금을 확대해 2040년에는 가구당 최대 연 1,000만 원 수준의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실행기관은 군산에 설립하는 전북성장공사다.

전북성장공사는 향후 조성될 RE100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수요를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후보는 "재만금과 전북은 RE100 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첨단산업 유치를 결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도민에게 돌려

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지역산업 육성, 노인복지 확대 등에 재투자하는 지역 환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후보는 "연금도시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성장과 도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노후소득을,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원팀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질서를 만들겠다"며 "도민의 소득이 늘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 노후가 든든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전북지역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0일 전주 2대리단길에서 이원택 도지사 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등과 엄지척을 하고 있다.

"현대차 9조 투자, 민주당이 책임진다"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 서영교 의원, 전북 후보 지원 유세 이원택 도지사 후보 "전북 발전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에 필요한 인법을 위해 법사위원장인 제가 방방이를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군산시 나운동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진행된 군산지역 민주당 집중유세 단상에 올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구상을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꼭 도지사가 돼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이끌어야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확실히 이끌어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얘기했는데, 벌써 8000을 찍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인 이원택을 반드시 도지사로 만들어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전북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집중 유세에 참여한 한민수 의

원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대통령과의 교감' 발언을 겨냥해 "제발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관에 끌어들이지 마라"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전북을 발전시킬 분"이라며 "군산시민들께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과 한 의원은 이날 전주 2대리단길에 찾아 전주사람들을 만나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원택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현대차 9조 원 투자 유치와 새만금 대전환 피지컬AI 수도 조성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과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원팀과 함께 전북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사람이 머무는 전북' 민생안심 3대 정책

김관영 무소속 도지사 후보

주거안정·4050 지원 등 발표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심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단순히 도지사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결정할 것인지, 도민이 직접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선거"라며 "전북의 미래는 막발과 비방이 아니라 도민의 한 표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신을 둘러싼 네거티브 현수막과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대책 회의 이후 시나 곳곳에 비방성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도민들의 당파가 아닌 정치공포에 사용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는 상대를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적이지 않거나 경제 비방이 아니라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심 3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민생안심 3대 공약은 △주거 안정 대책 △4050 '인 세대' 지원 △이주민·다문화 가족 상생 정책이다.

먼저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향후 4년간 공공 4만 1,000세대와 민간 4만 4,000세대 등 총 8만 5,000세대 규모의

주거공급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전주·고창·부안·진안·장수·새만금·무주 등을 우선 추진 지역으로 제시했으며, 청년·신혼부부·서민 중심의 공공임대 확대와 월세·임대보증금 지원도 약속했다.

또 새만금과 AI·2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와 연계한 주거단지 조성, 재취업 지원, 통합 상담창구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4050 세대는 전북 경제와 가정의 허리"라며 "이 세대가 무너지면 전북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주민·다문화 가족 정책으로는 '365 언니 멘토단' 확대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결혼이민자 취업·창업 지원, 다문화 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공약했다. 그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전북 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집 걱정을 줄이고 가족 돌봄의 부담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사람이 머무는 전북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찾아오는 전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 선거 지원·국가예산 확보 총력

1~5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6월 1~5일 주요 도정 일정과 핵심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철규 대변인이 맡아 선거 지원, 국가예산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복지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청 직원이 투표사무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만큼 6월부터는 기획재정부 대응과 정치권 공조를 본격화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5일 주요 현안 일정도 공개했다. 6월 1일에는 노홍석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도청 간부회의와 함께 해양 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장행정이 진행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순창 유등면 섬진강 카누센터를 방문해 카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내륙권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



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타이팩스 아누 북지역 식품기업 11개사가 참여해 수출 확대 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에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규기업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전북도는 신규기업 50개사를 선정해 총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총 107억 원 규모를 투입해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같은 날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국가지도 5호선과 49호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계 완료 노선에 대한 발주 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6월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특례사업으로 운영 중인 우분드체연료 활용사업의 규제특례 연장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6월 5일에는 옛 도지사 관사인 하안양옥집에서 국립공립극장과 협업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내륙권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

의 창작 작품 전시를 통해 자연과 예술의 공존 가치를 조명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개최되는 전북 외국인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유학생(D-2 비자)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안내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북도는 강릉 세계마스터스타구선수권대회와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실·국별 주요 홍보회도 확대 소개했다. 울림피유추진단은 오는 6월 2일 '국제 스포츠 시티노믹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생활체육·엘리트체육·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연계한 전주 하계올림픽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소방분부는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한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보살핌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으로 '노하우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 소방공무원과 수익직 공무원 등이 재난예찰과 가족살생 방

역 지원 등에 참여하게 된다. 현장 중심 안전행정도 이어진다. 이순택 환경산업국장은 완주 운주 지역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현장을 점검하며, 오택립 도민안전실장은 익산 망성면 삼북천 재해복구 사업장을 방문해 범람 피해 예방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1만호 기자

국가유산 돌봄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유산 돌봄 분야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29일 국립인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도내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산 돌봄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전북동부·서부국가유산돌봄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협업 체계를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우수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운영 사례와 현장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시군과 돌봄센터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현장 중심 관리 방식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실무 논의도 함께 진행해 사업 운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성과 발표를 비롯해 국가유산 방재 교육, 재난 예방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강연도 마련됐다.

도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문화유산 돌봄 합동연수회에서 국가유산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전북서부국가유산돌봄센터는 2년 연속 최우수단체, 전북동부국가유산돌봄센터는 2024년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1만호 기자

남원시 '민주당 원팀 승리' 세몰이

한병도 원내대표,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3시, 남원을 전격 방문해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민주당 원팀 승리를 위한 세몰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는 사전투표소를 찾아 나란히 투표권을 행사하며, 남원시민들을 향해 압도적인 지지와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전격 방문은 선거 막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남원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양충모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한 원내대표의 전폭적인 결단으로 성사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양충모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경제 식견을 갖춘, 남원의 중간 없는 발전을 이



끌어갈 유일한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양충모 후보가 약속한 남원 발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양충모 후보는 "이번 한 대표와의 사전투표는 남원의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이 모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치 행보 본격

전북 이전 필요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발맞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29일 방성운 복지여성 보건국장과 고령친화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방문해 김수영 원장과 면담을 갖고, 기관의 전북 이전 필요성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기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노인일자리 정책의 핵심 전담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북 이전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

련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차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정책 연계 가능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의 확장성 △고령친화산업 및 통합돌봄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설명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북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교류 접근성과 양호한 주거 여건, 풍부한 의료·생활 인프라 등을 소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이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연구 조사, 지역 노인일자리기관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만호 기자